# "공무원 줄인다는데…" 公試族 술렁

〈공무원시험 수험생〉

## "그동안 공부해 온 것 물거품 될라"

## 직종 전환·일반 기업 취업 등 고심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 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일명 공시족(公試族·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 S고시학원, H고시학원 등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더 늦기 전에 선발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행정직에서 경찰직 등으로 직종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많은 만큼 선발인원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수험생들의 타격도 클 수 밖에 없다.

1년째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문필상(24·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는 "오랫동안 시험공부를 해온 사람이야 그만두기 어렵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직종을 바꾸거나 일반 기업 취직으로 생각을 돌린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결원 충원만 한다는 소문이 떠돌아 학원에 가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7급 일반행정직 시험을 볼 예정인 박영선(여·23·북구 오치동)씨도 "차기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7급 시험 선발인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까봐 걱정이다. 더 줄기 전에 빨리 시험에 붙어야겠다"며 "광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반발했다.

9급 시험을 준비중인 김필식(27·서구 염주동)씨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 인원을 대폭 감축시키는 것을 보니 짜증이 난다"며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감축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공무원시험 전문학원 상담교사들은 고시생들을 안심시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 S고시학원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 문제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한 번식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어느 직종을 선택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느냐', '지금 준비 중인 시험 공부를 계속 해도 되겠느냐'는 등의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모 공무원시험 전문학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채용인원 감축을 검토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겨울철 산행 '조심'

### 무등산 사고 잇따라

최근 광주 무등산에서 겨울철 무리한 산행에 따른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무등산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12건으로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 실족에 따른 다리 골절 및 안면부상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으로 5명, 탈진으로 2명이 다치는 등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무등산 겨울 산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등반을 하다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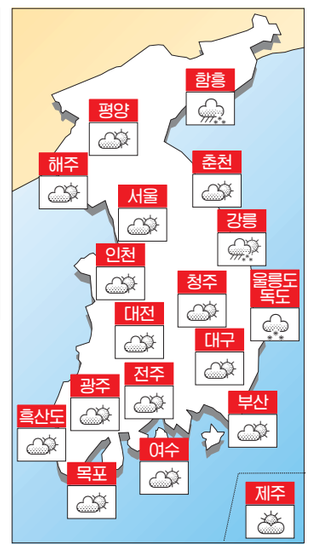
/안현주기자 ahj@

## 추워요 추워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며 흐린 후 개겠다.

1월 18일 (음 12월 11일) ◇전국날씨

| | | |
|---|---|---|
| 광 주 | 흐린후 갬 | -6~3℃ |
| 목 포 | 흐린후 갬 | -4~4℃ |
| 여 수 | 흐린후 갬 | -4~5℃ |
| 완 도 | 흐린후 갬 | -4~3℃ |
| 구 례 | 흐린후 갬 | -8~4℃ |
| 해 남 | 흐린후 갬 | -5~3℃ |
| 장 흥 | 흐린후 갬 | -6~4℃ |
| 고 흥 | 흐린후 갬 | -6~6℃ |
| 순 천 | 흐린후 갬 | -8~4℃ |
| 영 광 | 흐린후 갬 | -6~3℃ |
| 진 도 | 흐린후 갬 | -5~4℃ |
| 전 주 | 흐린후 갬 | -7~2℃ |
| 남 원 | 흐린후 갬 | -8~3℃ |
| 흑산도 | 흐린후 갬 | -1~1℃ |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0:10 22:09 썰물 02:37 15:54
여 수 밀물 05:25 17:35 썰물 11:44 23:48

▲해뜸 07:40 ▲해짐 17:46 ▲달뜸 13:39 ▲달짐 03: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19(토) | 20(일) | 21(월) | 22(화) | 23(수) | 24(목)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5/5 | -1/7 | 4/6 | 1/4 | -2/3 | -2/4 |

## "수능 성적 정보 모두 공개해야"

### 수도권 대학 입학처장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17일 서울·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은 "수능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뿐 아니라 원점수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등급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 · 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35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모임을 갖고 수능 등급제 개선방법 및 적용시기, 대입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회장인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현재의 수능 등급제는 문제점이 많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표준점수, 백분위, 원점수까지 공개해 대학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등급제 개선 시기에 대해 정 처장은 "당장 2009학년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험생을 고려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입학처장들은 또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수능, 학생부, 논술 등 전형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입전형기본계획의 규제 내용을 폐지하고 대학별 모집시기, 전형일정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 제한 합헌"

### 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노모씨 등 찜질방 업주 5명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심야출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해 이 규정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섬진강의 4계' 우표 4종 발행

전남체신청(청장 김치동)은 한국의 강 시리즈 두번째편 '섬진강 우표' 4종을 선보인다.

1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섬진강 우표는 섬진강의 사계(봄·여름·가을·겨울)를 표현했으며 강을 나타내는 물결무늬 특수천공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250원이며 종당 56만장씩 총 224만장이 발행된다.

영호남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섬진강은 총 길이가 212㎞, 유역 면적이 4천896㎢로 지리산 기슭을 휘감아 돌아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하동을 거쳐 남해로 흘러가는 남도의 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 고교 시험 올해부터 수준별 평가

## 교육부, 수준별 수업도 전면 확대

올해부터 고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전면 확대되고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도 수준별로 치러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준별 수업을 모든 고교로 확대하고 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며 2월중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준별 평가는 영어와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는 과목의 중간.기말 고사에서 전체 문항 중 3분의 2 가량은 모든 학생이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 출제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다르게 출제하는 방식이다.

공통 문항 외에 4~5개 문항을 가장 어려운 문제와 중간단계 문제, 쉬운 문제로 분류해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별 수업 내용에 따라 골라 치르게 되며 성적은 현재와 같이 9등급제로 기재된다.

선택 문항은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같은 수의 문제를 풀어도 어떤 문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차이나고 만점을 받으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준별 수업 이수 및 평가 상황을 기록해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009년부터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별도 교과서를 개발,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는 내용의 수월성 제고 운영체제 개편 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전남대 기성회비 8.6% 인상

올해 전남대학교 기성회비가 8.6% 인상된다. 전남대는 17일 최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기성회비 인상률을 지난해 8.8% 보다 0.2% 포인트 낮은 8.6%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8일 열리는 기성회 이사회와 평의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과속 단속 봐주기 의혹' 관련

## 이동식 카메라 수거 조사

광주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교통단속 카메라를 수거해 삭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청의 이같은 조치는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경이 단속된 사진을 삭제해줬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청에 따르면 구랍 21일과 지난 11일 광산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M(21) 상경이 인터넷 모 사이트 게시판에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된 회원의 사진을 삭제해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광주청은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2대를 수거, 삭제여부를 조사중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